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입학준비금 지급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대상 지원 넓혀  
초등 8만원, 중·고등 15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4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서울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물론 서울 거주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공교육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지원을 강화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서울 거주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공교육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학생이 받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왔다. 이어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거주 학생 가운데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신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소속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서울시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 과정 8만원, 중·고등 과정 15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다. 사용 가능 품목은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 물품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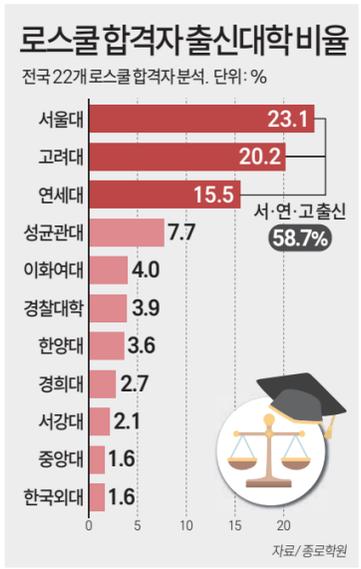
# 올해 로스쿨 합격생 60% 'SKY' 학과보다 대학간판 영향력 여전

### 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분석 서울권 자교출신 합격비율 높아 서울대 로스쿨 62% 자교생 선발 문이과 통합 후 구조변화 '변수'

2026학년도 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1856명 가운데 58.7%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도 70.4%에 달해 로스쿨 입시의 출신대학 편중과 서울권·자교 중심 선발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27일까지 최종 공개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자 출신대학을 공개한 22개 로스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 합격자가 429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374명(20.2%), 연세대 287명(15.5%), 성균관대 142명(7.7%), 이화여대 74명(4.0%), 경찰대학 72명(3.9%), 한양대 67명(3.6%), 경희대 50명(2.7%), 서강대 39명(2.1%), 중앙대 30명(1.6%), 한국외대 30명(1.6%) 순이었다.

합격자 분포는 상위권 대학에 집중됐



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서연고 출신은 1090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를 포함한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은 70.4%였다. 중앙대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 출신 비중은 84.3%, 한국외대까지 포함한 상위 11개 대학 출신 비중은 85.9%였다. 로스쿨별 자교 출신 합격비율도 서울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의 자교 출신 합격비율은 61.8%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44.4%, 경희대 35.4%, 연세대 33.3%, 성균관대 32.6% 순이었다. 권역별 평균 자교 출신 합격비율은 서울권 12개 로스쿨이 33.1%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2개 로스쿨은 5.5%, 지방권은 7.5%로 집계됐다.

합격생의 전공 계열에서는 인문계열 강세가 이어졌다. 서연고 로스쿨 합격생 가운데 인문계열은 77.9%, 자연계열은 14.2%, 기타계열은 7.8%였다. 다만 자연계 출신 비율은 2018학년도 8.0%에서 2026학년도 14.2%로 높아졌다.

종로학원은 로스쿨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 점수의 영향력이 큰 만큼 상위권 대학 브랜드가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학과보다 대학 브랜드를 우선해 진학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다만, 2028학년도 문이과 완전 통합 이후에는 자연계열 출신 합격생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도심부터 섬까지... 인천, 봄꽃으로 물든다

인천관광공사, 봄 여행 코스 제안

인천관광공사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테마별 봄꽃 명소를 소개하며,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봄 여행 코스를 제안했다.

먼저 '도심 속 힐링 산책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인천대공원은 40년 이상 된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약 1.2km에 걸쳐 장관을 이루며, 호수와 어우러진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다.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벚꽃축제가 열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SK인천석유화학 벚꽃동산은 6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만든 1.5km 벚꽃길이 인상적인 숨은 명소이며, 남항근린공원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벚꽃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시간 여행 꽃구경' 테마에서는 낮과 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색다른 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



인천대공원. /인천시

으로,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일대의 이국적인 건축물과 벚꽃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대자연 봄꽃 트레킹' 코스를 추천한다. 장봉도는 벚꽃과 진달래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4월 25일 벚꽃축제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시모도는 신도·시도·모도가 다리로 연결된 섬으로, 완만한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벚꽃 라이딩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신도 구룡산에는 7,3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벚꽃 섬'으로 불린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서울교육청, 서울대와 미래교육 혁신 맞손

### AI·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대응 교육자료·AI 평가 시스템 등 개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함께 30일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디지털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학교 현장 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는 혁신 학교 현장의 교육적 시도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협력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채움AI' 고도화 및 교원 역량 강화 ▲IB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모델 구현 ▲교원 대상 대학원 특별연수 및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 활성화 ▲AI 시대 수학·과학 교원 연수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전문가 양성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역량 지원 프로그램 확산 ▲사범대와 연계한 현장 기반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 8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는 이번 협력이 공동연구에 그치지 않고 중등교육 현장과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연결되는 협력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AI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과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연수 프로그램 개발, IB 기반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진로·진학상담,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공동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서울 학생들을 위해 현장 기반 연구와 연수는 물론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향한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전구간 자율주행버스, 새벽 출근길 달린다

서울 구파발~양재 구간 왕복 1회 운행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버스가 급행화와 전구간 자율주행으로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

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1 | 해질 / 18:53

**3월 30일 (월)**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왕은 없다”(NO KINGS) 반트럼프 주말 시위, 미국 넘어 유럽 각지서도 폭발 /사진 뉴스시
- ▲미·이스라엘 이라크 공습에 이라크 보안군 최소 5명 피살

- ▲젤렌스키 “러시아가 미군 기지 정찰”...이란 공격 연관 의혹
- ▲이란, 호르무즈서 파키스탄 선박 20척 통과 허용

- ▲튀르키예 “우크라 개전후 흑해에서 275개 의심 물체 발견” 발표
- ▲“멀리 안 가고 혼자 즐긴다”...달라진 日벚꽃놀이 풍경, 왜?